

7조원대 카드 리볼빙 잔액...카드사 부실 '경고등'

카드론·리볼빙 잔액 1년새 크게 증가...총당금 61% 상승에 실적 하락 대부분 카드사 연체율 1% 넘어...다중채무자 많아 건전성 관리 빨간불

경기 침체 속에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이용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최고 금리가 20%에 달하는데도 시중 카드사 연체율은 높아지면서 카드사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원으로, 작년 말

(33조6450억원)보다 4760억원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카드론 잔액이 10조9950억원으로 40대(10조9210억원)를 넘어 가장 잔액이 많았다.

2019년 말 기준 29조원대였던 카드론 잔액은 2020년 말 32조원, 2021년·2022년 33조원대, 올해 1분기 34조원대로 50~60대를 위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증가세다. 이날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롯데·우리·하나·현대)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은 7조1729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4월(6조274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결제대금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가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워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카드사들도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1분기 카드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

의 연체율은 대부분 1%를 넘겼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1.37%), 삼성카드(1.10%), KB국민카드(1.19%), 롯데카드(1.49%), 우리카드(1.35%), 하나카드(1.14%) 등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2019년 3분기(1.40%) 이후 연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카드는 2020년 1분기(1.24%) 이후, 삼성카드는 2020년 2분기(1.2%) 이후 연체율이 가장 높다.

리볼빙 잔액이 커지면서 카드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체 대금이 커질수록 카드사의 총당금 적립도 커지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카드사들의 실적이 하락했는데 총

당금 전입 규모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 1분기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5곳의 당기순이익은 합계 46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962억원)과 견줘 22.8% 감소했다.

이들 카드사가 올해 1분기 적립한 대손비용인 총당금은 576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3577억원)보다 61.3%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연체율 문제는 은행부터 카드, 저축은행 등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카드론을 받는 고객 다수가 다중채무자인 만큼 당분간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첨단소재, '생물다양성의날' 맞아 반려해변 정화 활동

용유해변 입양 돌봄 활동 지속도

효성첨단소재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22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열고 반려해변 가꾸기에 나서는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 다양성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UN)이 선포한 날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퀴즈 이벤트를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열었다.

또 19일에는 효성첨단소재의 임직원 30여명이 인천 영종도 용유해변을 찾아 반려해변 정화 활동에 나섰다. 반려해변 활동은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처음 시작된 환경운동으로 기업이나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입양해서 정성껏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주관 사업으로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부터 용유해변을 입양해 돌봄 활동을 펼쳐왔다.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는 "생태계 내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사업 활동에서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효성첨단소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생물 다양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효성첨단소재 임직원들이 인천 영종도 용유해변에서 반려해변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전'을 기후변화대응활동의 한 축으로 설정해 2021년 생물다양성 방침을 제정했다. 친환경 기술과 제품 개발, 부정적 환경영향 최소화 등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이해관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성첨단소재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본격

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립생태원과 MOU를 체결하고 생태환경 보전과 자연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멸종 위기종인 전주물리풀 복원 및 식재지 조성 사업을 후원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4월 국립생태원으로부터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평동농협, 풍년기원 모내기 행사



평동농협은 22일 광주시 광산구 지족동 일대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첫 모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동농협은 2018년부터 고품·영세농가의 영농 지원 및 지역 쌀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양작업 등의 농작업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품질 육묘를 생산, 공급하는 벼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267농가, 86ha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농업인이 사전주문한 3만4000장의 육묘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육묘상처리제를 무상지원하며 지역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삼규 평동조합장은 "우리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쌀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고품·영세화된 농촌 현실 속에서 농협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 콘텐츠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29일~6월 9일까지 접수

4개 기업에 10억원 지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2023 AI+콘텐츠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콘텐츠창작

랩(이하 AICL)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은 오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4개 기업에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AICL은 2021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4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원기업 중 하나인 ㈜스튜디오질풍은 딥러닝 기반 자연어 매칭을 통한 이미지 어셋 추출 처리 방식이 적용된 웹툰제작 플랫폼(KETCHUP)을 제작한 바 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주관 혹은 참여 관계 없이 전국의 모든 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 중 최소 1개사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광주에 본사를 설립한 지역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icon.or.kr>) 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7.08 (+19.29)
↑ 코스닥	852.04 (+10.32)
↓ 금리(국고채 3년)	3.318 (-0.022)
↓ 환율(USD)	1318.10 (-8.60)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